

### 불교와 오페라가 만나면

2004년 연구학기를 맞아 미국 워싱턴 근교의 린치버그대학에서 개인 작곡 발표회를 연 정부기 교수(중앙대). 그는 발표회에서 한국불교음악을 소개해 호평 받았고 불교 오페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들었다. 그래서 불교계 최초의 오페라단 창단을 기획하며 부처님일대기를 담은 오페라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불자들에게 '오페라'라는 종합예술이 여전히 멀고도 생소하다. 불교와 오페라는 조화로운 만남을 꾀할 수 있을지, 과연 만남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지 등의 의문만 생길 뿐이다. 하지만 음악 전문가들은 오페라는 한국불교 문화포교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불교와 오페라가 만나면 어떨까?



1999년 초연된 정부기 교수의 오페라 '아미타불'. 현대불교 자료사진

# 고급문화상품 가능성 충분

## 정신적 깊이 담보가 관건... "관객이 모여야 '포교' 논할 수 있다"

### ▽오페라?

오페라는 '가극(歌劇)'으로 번역되지만 단순한 음악극이 아니다. 노래와 춤, 연기를 두루 갖춰지며, 그 가운데 노래가 중심이 되는 종합예술이다.

그렇다면 뮤지컬도 오페라일까? 노래 중간 중간 대사로만 연기도 하고 때로는 춤만으로도 극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뮤지컬이다. 그러나 오페라는 "작품 전체가 작곡돼 있다". 즉 모든 대사가 노래로 표현되는 것이다. 대화체 노래 '레지타티보', 주인공의 내면을 표현하는 독창곡 '아리아', 4-5명의 노래 앙상블, 합창 등이 극의 전개를 담당한다.

오페라의 짧은골 '오페레타'도 있다. 오페라의 한 갈래인 오페레타는 규모와 공연시간 등에서 오페라에 미치지 못하고, 음악의 비중이 적은 반면 연극적인 요소가 오페라보다 강한 편이다. '대화체 노래'가 아닌 '대사'가 동반되는 것도 오페레타의 특징이다.

### ▽불교 오페라의 더딘 맥박

우리나라의 오페라 역사는 길지 않다. 1948년 '라

예술종합학교이 대본과 곡을 쓴 오페라 '동승'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자승의 마음을 단막극 형태로 담아낸 작품. 기본적으로 아리아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현악 4중주에 일렉트릭 디지탈 피아노 음색을 조화시킨 음악이 돋보였다.

이외에도 정부기 교수는 1999년 '아미타불'이라는 오페레타를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중생구제와 성불을 위해 48서원을 세워 아미타 부처님이 린 법장 비구의 구도과정을 담고 있다. 신디사이저를 활용한 대중적인 음률을 가미시켜 인기를 모았다.

### ▽불교오페라의 가능성

서양음악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불교계가 거듭 오페라를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기 교수는 찬송가의 예를 든다. 개신교에서 찬송가에 쉬지 않고 매달리는 이유는 그것이 마음의 감동을 끊임없이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 감동은 포교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그것에 있어 찬불기도 예외가 아니다. 정교수는 "그러한 불교음악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오페라야말로 가장 완벽한 포교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관현악곡, 교성곡 등과 달리 대사 등의 수단을 통해 '설명'을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오페라가 타 장르를 넘어설 수 있는 장점이다.

직접적인 포교효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만들어진 오페라'가 지니는 불교문화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오페라 평론가 김학민씨는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 등의 소재는 한국 오페라계에서 이미 진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무궁무진한 레퍼토리와 함께 정신적인 깊이를 담보하고 있는 불교는 한국 오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범패 등의 불교음악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적 오페라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능성과 예술성만 믿고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화평론가 장일남씨는 "예술적 완성이나 포교효과 등은 관객의 관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할 수 없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재미있는' 스토리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 불교계 최초 오페라단 '바라' 6월 창단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초연

### 삼보불교음악협회, 10월 14~15일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창작 오페라가 불교계 최초의 오페라단과 함께 선보인다.

삼보불교음악협회는 10월 14~15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을 무대에 올린다. 이는 정부기 교수가 부처님 일대기 '붓다의 노래' 합창교향곡을 각색해 만든 3막 6장의 그랜드 오페라로, 오는 6월 말 창단 될 불교계 최초 오페라단 '바라'에 의해 공연될 예정이다.

야수다라와 아난다가 고백하는 형식으로 서술된 이번 곡은 기존의 불교 오페라가 노래에 극적 전개를 맡긴 것과 달리, 극의 3분의 1 가량을 대사 등의 연극적인 요소를 살려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 교수는 "스토리가 연기에 의해 전개되는 부분이 많다"며 "부처님의 일대기를 관객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성제 등 풀어내기 어려운 불교 교리는 무대장치를 이용해 자막으로 표현된다.

국악기의 선율에 서양악기의 음색이 조화를 이루는 악기편성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10여종의 국악기, 파이프오르간·탐파나 등의 서양악기가 음악을 조율한다. 10여곡의 아리아, 150여명에 이르는 전국불교연합창단원들의 합창도 극의 전개를 돕는다.

이밖에도 무대 곳곳에서 선보일 환희의 춤, 열반춤 등의 다양한 춤사위도 오페라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오페라의 수익금은 운문 스님의 불음포교를 기리기 위한 불교음악역사관 건립에 사용된다. 초연 이후에는 포교를 위한 전국 순회공연이 계획돼 있다.

강신재 기자



장일남 박범훈 이건용 정부기

트라비아타'가 국내 오페라 첫 무대였다. 내용면에서도 서구 오페라를 모방하는 정도에 그치곤 했다.

불교 오페라 역시 한국 오페라의 빈약한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무대가 기획될 때마다 독특한 주제와 콘텐트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불교를 소재로 한 오페라의 최초는 1971년 장일남 교수(한양대)에 의해 무대에 오른 '원효'.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국내 최초의 창작 오페라 '원효'는 원효 스님의 무애자재한 삶을 담아내면서 이목을 끌었다. 김자경오페라단(71년)·국립오페라단(83년)·글로리아오페라단(95년)에 의해 세 차례 공연됐다.

이후 2000년에는 최초의 한국적 오페라를 표방한 창작 오페라 '직지'가 공연됐다. 금속활자를 고안한 고려인들의 새 문화 창조자의 박범훈 교수(중앙대)의 곡으로 살아났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소재로 한 점,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혼성 편성에 판소리 등의 고유 창법과 양악 창법을 결합시킨 점 등으로 한국적 오페라의 가능성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는 주경중 감독의 영화 '동승'을 오페라로 각색한 '동승'이 무대에 올랐다. 이건용 총장(한국

장일남 교수의 '원효'가 불교 소재 최초  
동승·직지 등 독특한 주제 일반인에 호응  
진부한 소재 탈피·재미있는 스토리 우선



주경중 감독의 영화 '동승'을 오페라로 각색한 '동승'이 지난해 무대에 올랐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음질, 설비 전문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학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울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들에게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시는 지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회장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212677-5442  
소연구원 : 0321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 현대결혼연구원

## 바로 그달마도

###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보살 가페일은 신비의 달마도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시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아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7-242-0808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 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원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가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정녀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 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주무이 돼드라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아졌다.
- 천식이 멀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물에 부기가 빠져졌다.
- 임파선이 나아졌다.
- 자궁 출혈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아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아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봉사하는 마음으로 영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들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1Box(60포) 15만원 | 2Box(120포) 25만원

주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성명 : 심정택 H.P : 011-9242-8292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